

무등산 배경 하이다이빙... 가장 역동적 모습 연출



조선대에 세운 27m 높이 하이다이빙 경기장, 입장권 매진 남부대 수구경기장 임시풀 2곳... 광주·전남 선수 대거 출전



조선대학교 운동장에 마련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 경기장 공사가 마무리되고, 대회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세계수영대회 D-8

③ 하이다이빙·수구 경기장

하이다이빙 경기장과 수구경기장이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새로운 볼거리로 떠올랐다.

오는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하이다이빙경기장은 국내외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하이다이빙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무등산과 조선대를 배경으로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뛰어 내리면서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하이다이빙은 조선대 축구장에 설치된 27m 높이의 다이빙대와 임시수조에서 진행된다. 하이다이빙은 아파트 10층 높이가 넘는 27m(남자)와 20m(여자)의 아찔한 높이에서 지름 15m, 깊이 6m 수조로 뛰어 내려 수영대회 종목 중 가장 역동적인 모습이 연출된다. 특히 다이빙의 공중 예술 연기와 함께 광주시 전경과 무등산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TV영상을 통해 전 세계로 전파될 예정이다.

하이다이빙 경기는 다음달 22일부터 사흘간 펼쳐진다.

2015년 러시아에서 열린 카잔수영선수권대회 하이다이빙에서는 러시아 공전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시내풍경이 카메라 앵글에 잡히면서 카잔이라는 도시를 전세계에 알렸다.

지난 2017년에도 세계인들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도나우 강변을 배경으로 펼쳐진 하이다이빙 경기를 TV 등을 통해 지켜봤다. 수영대회의 백미인 하이다이빙은 부다페스트의 랜드마크인 고풍스러운 외관의 국회의사당 앞 도나우 강변에서 열렸고 세계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대회 개최 이후 헝가리 관광객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무등산이 그 역할을 한다.

조직위는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이 보이는 조선대 운동장으로 결정했다. 조선대 역시 본관을 배경으로 대회가 펼쳐져 특수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27m 높이에서 무등산을 배경으로 최고의 명장면을 보여줄 '하이다이빙'

(6500장)의 입장권은 일찌감치 판매목표량 100%를 달성했다

다만 하이다이빙에는 한국선수가 출전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지 얼마 안 돼 하이다이빙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최초로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수구경기장도 주목받고 있다.

수구 경기장은 남부대학교 축구장 바닥에 단단한 철근을 깔고 그 위에 경기풀과 훈련풀 임시수조 2개를 올리는 방식으로 지었다.

수구는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 남부대 종합운동장에 조성된 임시풀에서 개최된다. 대회 유일한 단체경기로 남녀 총 2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수구는 1900년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13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경기에는 선수 6명과 골키퍼 1명이 된다. 경기물은 비교적 간단해 2개팀(각 7명) 이상 대쪽에 골을 넣어 득점을 겨루는 경기다.

수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종목이지만 유럽과 북미에서는 물속에서 펼쳐지는 하키 경기처럼 격렬하고 치열한 선수

들의 경쟁 때문에 인기가 높다. 남부대 임시풀에는 경기풀(35×25×2m), 훈련풀(50×25×2m) 2개가 설치되

며, 관람석 5000석이 들어선다.이번 수구 대회에는 광주·전남지역 연고팀 소속이거나 출신인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설치한 수조 등은 임시 시설물로 마스터스 대회등이 끝나면 모두 철거될 예정이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북·미 비핵화 협상 탄력받나

폼페이오-리용호, 다음달 초 방콕서 고위급회담 가능성

북한과 미국 정상이 6·30 '판문점 회동'에서 비핵화 협상 재개에 합의한 가운데 양국이 내달 초 방콕에서 고위급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달 중순 예정된 실무협상에서 성과를 내고 이를 바탕으로 곧바로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면 비핵화 협상이 한층 탄력을 받으면서 차기 북미정상회담도 가시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8월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동반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ARF 외교장관회의는 북한과 미국이 함께 가입해있는 유일한 장관급 회의체로, 미국은 물론 북한도 매년 참석해왔다.

두 장관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였던 작년 ARF 회의에도 동반 참석했지만, 잠깐 악수하고 담소를 나눴을 뿐 공식적인 만남은 없었다.

당시엔 리용호 외무상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한발 비켜나 있었기 때문으

로,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폼페이오 장관의 북측 상대가 통일전선부를 담당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서 리용호 외무상으로 교체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폼페이오 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은 6·30 판문점 회동 당시 두 정상의 단독 회담에 나란히 배석했으며, 폼페이오 장관은 이후 "우리의 카운터파트로 외무성을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폼페이오 장관의 카운터파트는 리용호 외무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ARF를 계기로 만난다면 고위급회담 성격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회담의 개최 및 성과 여부에 앞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상당히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상에서 이견 조율에 성과를 도출한 뒤에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면 협상 분위기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위급회담에서 차기 정상회담 개최에 대

한 구체적인 논의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반대로 실무협상에서 특별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고위급회담 분위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이 경우라도 고위급회담을 통해 다시 한번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미 고위급회담 성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ARF 회의에 맞춰 방콕으로 건너올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도 방콕에 온다면 이곳에서도 실무협상이 계속될 수 있다. 일각에선 북미 실무협상이 이달 중순 방콕에서 시작돼 ARF 기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추측도 하고 있다.

한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방콕 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미 수석대표협의는 물론이며 북측에서 대표가 온다면 지난 1월 스웨덴에서처럼 북미 회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

남북미 정상 판문점회담 평가 긍정 63% vs 부정 29%

지난달 30일 이뤄진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국민평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지지부진했던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켰으므로 잘했다고 본다'는 긍정평가는 62.7%로 집계됐다.

'보여주기식 만남에 그쳤으므로 잘못했다고 본다'는 부정평가는 29.0%였다. 모름·무응답은 8.3%였다.

긍정평가는 모든 지역과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최소 절반을 넘거나 최대 90%대 중반을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83.2%, 보수층에서 58.5%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정은, 판문점 만남서 文대통령에 "고맙다" 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갔다가 남측으로 건너온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청와대가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기 직전에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넘어갔다 와도 되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위원장이 MDL을 넘어 남쪽으로 와서 남북미 정상이 자유의 집으로 계단 올라갈 때 문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북미 정상이 MDL

에서 첫 만남을 하기 전 "자유의 집에서 기다리던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느냐고 물었고, 문 대통령은 '약속하고 손을 잡고 넘어가시면 괜찮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의전 책임자와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어떤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상 간 대화 내용은 외부로 전하지 않는 것이 관례다. 말씀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정확히 '감사하다'는 말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거듭된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들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

<h1>입야</h1>	<h1>교환전문</h1>
바로 삽니다 지분물건환영.010-6834-7400	빌딩/토지/입야등 모든 부동산 정확/신속처리.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게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덕남동, 입야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뱀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신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백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자격(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5200만원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1934㎡와 1057㎡ 공시가 1억4800, 매도 2억천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500
- 원풍 등 적한 부지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5천
- 함평 송촌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산구 쌍암동 대평빌딩 중의 2층 25㎡ 과일중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 건물

- 두양동 버스도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순천시 낙안면수마을 땅 2180㎡ 팬션3동 317㎡ 교환가능 8억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풍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풍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충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 물건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김정 8억4천전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동구 신수오거리 대로변 1248㎡ 병원 등 다양도 50억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을 드들강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